



## 성령의 은총과 열매

성령의 7가지 은총	
지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느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것</li> <li>•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는 것</li> </ul>
통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앙의 진리에 대한 통찰</li> <li>• 나 자신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통찰(존재의 의미 고찰)</li> </ul>
식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느님을 내 삶의 조언자로 모시는 것</li> <li>• 삶의 모든 순간에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는 것</li> </ul>
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느님께 다가감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을 극복하는 힘</li> <li>•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는 의지를 견고하게 해주는 은총</li> </ul>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조물을 향한 하느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li> <li>• 하느님만이 우리의 행복에 대한 갈망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깨닫는 것</li> </ul>
공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느님을 자녀로서 경외하는 마음</li> <li>• 타인을 형제자매로 대하며 그들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li> </ul>
경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숙한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이며 신앙을 증거하도록 이끌어주는 은총</li> <li>• 하느님을 향한 존경의 의미로서의 두려움(양심에 충실함)</li> </ul>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하느님과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li> <li>•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것</li> </ul>
기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기쁨 (사랑받는 존재)</li> <li>• 감사할 줄 아는 마음</li> </ul>
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느님 안에 뿌리내림으로써 우러나는 만족감</li> <li>•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함</li> </ul>
인내	이웃과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먼저,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향한 믿음</li> <li>• 약점과 다름을 인정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음</li> </ul>
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개심으로부터의 자유로움</li> <li>• 용서와 화해의 바탕</li> <li>• 한계를 지닌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li> </ul>
선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의 선성(善性)을 확인하는 것</li> <li>• 창조물의 선성(善性)을 보존하려는 노력</li> </ul>
성실	나 자신과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절함의 역동적인 표현</li> <li>• 하느님께 자신과 자신의 모든 활동을 봉헌하는 것</li> </ul>
온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방식</li> <li>• 대범하고 너그럽게 대함</li> <li>• 하느님 안에서의 쉼</li> </ul>
절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느님 사랑이 빚어낸 결과</li> <li>• 욕망을 다스리며 이겨내는 것</li> </ul>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며 바른길로 인도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이러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은총은 주체적으로 신앙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성숙한 신앙인에게 주어지는 하느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성령이 빚어주시는 9가지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의 은총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한 믿음과 그에 따른 내 삶의 투신이 있을 때 자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목국기획연구팀